Catholic
정릉주보
제1140호
2020년 9월 13일(가해)

연중 제24주일

캘리 | **이 아미카** 그림 | **안 오틸리아**

입당송 집회 36,21-22 참조

주님,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당신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제1독서 집회 27,30-28,7

화답송 시편 103(102),1-2.3-4.9-10.11-12(◎ 8)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끝까지 캐묻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

제2독서 로마 14,7-9

복음환호송 요한 13,3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음 마태 18,21-35

영성체송 시편 36(35),8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하느님이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청년 인터뷰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번역부(예로니모)
김예슬 아기아가타

Q. 신앙 안에서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번역부(예로니모)에서 세계 가톨릭교회 소식을 우리말로 옮겨 국내에 전하고 있습니다. 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 세계 가톨릭 청년 소식 등 한국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번역합니다. 더불어, 의정부교구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미래세대연구자모임 샬롬회에서도 활동합니다. 같은 신앙의 뿌리를 지닌 청년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기쁨과 어려움에 대해 나누고, 서로에게 자극을 받으며 건강한 신앙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제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세상에 하느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Q. 활동(봉사)하면서 하느님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청하며 임하는데요. 그럼에도 결국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든 늘 잘하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 탓이죠. 특히, 부서장 같은 단체장 역할을 맡았을 때 그런 마음앓이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던 순간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연초 부서원 피정에서 하느님의 따스한 돌보심을 느꼈습니다. 돌이켜보니 언제나 하느님께서는 저와 함께하시며 저의 부족함을 그분께서 완성시켜 주시고 계셨어요.

Q. 봉사를 하며 마음에 새기고 있는 성구가 있다면?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예레 1,19)

김예슬 아기아가타 자매님의 이야기는 4면 신앙일기에서 계속됩니다.

코로나19보다 무서운 분노 바이러스

김도연 스테파노 신부님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대학교사목부

제 안에는 '화'가 있습니다. 프로야구를 보다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선수들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실시간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을 보면 또 한 번 '화'가 납니다.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 화내지 말자.' 스스로 다짐해 보지만 프로야구 중계가 끝나고 응원하는 팀이 지고 나면 제 안에 남는 건 '화'밖에 없는 듯합니다. 야구를 끊어야지 다짐하면서도 다음 날 어김없이 스포츠 중계에 접속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화'가 도집니다.

운전할 때도 '화'가 납니다. 민식이 법으로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고 규정 속도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천천히 운행하는데 뒤에서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는 무개념 운전자를 만나는 날에는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려 욕을 한 바가지 하는 영화 속 한 장면을 상상합니다.

보행자가 되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화'가 납니다. 아직 보행자 신호가 깜빡거리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찔끔찔끔 전진하는 운전자를 만나면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하고 싶어집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는 난폭한 운전자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화'를 내고 난 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이리 '화'가 많아졌을까. 코로나19 감염병 시대가 길어지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집단 우울감에 사로잡힌 건 아닐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분노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나 역시 분노가 늘어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생활화로 전보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해 외로움이 커진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런저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제 안에 '화'는 코로나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도 자상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라는 그럴듯한 핑곗거리를 찾은 것뿐이지요.

제 안에 '화'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는 다른 이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용서받은 체험이 클수록 다른 이에게 너그러워지게 되는데 아직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기에 하느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한 사람만이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다른 이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첫 단추는 하느님 자비의 체험과 그로 인한 회개의 삶입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고해성사를 봐야지 다짐합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나 자신과 화해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내 안에 쌓여진 '화'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불의를 참지 않고 '화'를 잘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타인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하면서 '화'를 다룰 줄 아는 멋진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내.알.맞 마아춤 음주성 을는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조카가 내 핸드폰을 변기에 빠트렸을 때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욥 1,21)

세상 이야기를 가톨릭 청년답게 나눠보는 담소 공간

슬기로운 청년 생활

Ep30. 주거불안 사회적 갈등

'휴거'(휴먼시아 거지)

혹시 '휴거(휴먼시아 거지)'라는 말 들어봤니? 강남 일대 임대 아파트의 특정 브랜드에서 기인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부르는 용어라고 해. 아이들이 장난처럼 별명으로 사용하는 이 같은 말에는 가난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의미가 내재돼 있어. 사회적인 빈자에 대한 혐오가 아이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 차별과 배제를 지양하도록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거야.

하우스 푸어(house poor)

서울의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을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 봤을 거야.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상승하는 집값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불안 심리가 팽배해진 거 같아. 주변에서 집을 사서 몇 억을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상실감이 물밀듯 밀려오는 게 사실이야. 부모님의 도움이나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받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소위 말하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빚을 얻어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거야. 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거 계급

허장성세 (虛張聲勢)

영끌해서 내집 마련

임차인 vs 임대인

빛 좋은 개살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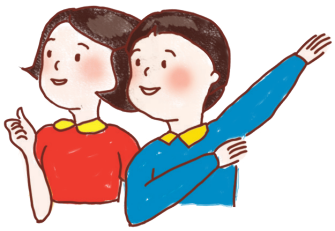
사람들은 남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욕망(메갈로티미아)을 갖고 있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으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싶어 하지. 하지만 과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화려하다고 행복할까? 현실은 소득의 대부분은 써보지도 못하고 은행 대출금 상환에 쓰고, 본인은 근근이 힘들게 살아간다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빛 좋은 개살구 보다 상처는 좀 있지만 잘 익은 복숭아를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상생(相生)

얼마 전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한 국회의원의 의회 연설이 큰 반향을 일으켰어. 연설의 요지는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은 상생해야 한다는 거야. 임대인과 임차인은 갑을 관계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둘은 상생해야 하는 관계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줘야 할 역할이 있듯이,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해줘야 할 의무와 역할이 있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지 않을까? 보다 더 신중하고 많은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과도한 혼란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거야.

사랑하는 청년들!

교회에서는 공동선을 벗어나 개인의 탐욕스러운 이윤 추구 수단으로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거부합니다. 반면에 인간에게 유익하고 모든 이의 생활에 꼭 필요한 재화와 일자리의 공급을 보장하는 시장 경제는 지지합니다. 주거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 그리고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을 입안하는 공직자 및 정치인들 모두가 '주거안정'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듯이 서로 불신을 가지지 말고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 난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YOCAT 442항을 읽어 보세요.)



슬기로운 청년 생활에서 함께 나누고, 고민하며, 서로 사는 얘기를 들어 보아요.

- 집으로 사람을 평가한 적이 있나요?
- 집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 집 걱정 없이 삶을 보다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쉼표

인간이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직위? 돈? 그가 누구든,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그가 무엇을 가진 사람이든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에 하는 단어가 바로 '손'이라는 겁니다.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박경철

"하느님, 저기에 꼭 함께 계셔주세요."

김예슬 아기아가타 / 포이동 성당

흐이익! 그새 기사가 또 새로 올라왔네. 타다닥. 타닥닥. 밤이고, 낮이고, 빨간 날, 파란 날 구분 없이 24시간 365일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곳은 방송국 통합뉴스룸. 전국 각 계각층은 물론이고 세계 소식, 심지어 북한 뉴스까지 다루는 이곳 보도국 한편에서 저도 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바로 외신 뉴스 번역입니다. 물론 한가한 시간대나 요일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근무시간에는 시시각각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소식을 바로바로 번역하느라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제대로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COVID-19와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활자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딱딱한 정치 갈등 문제부터 (얼마나 많은 무력 분쟁이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는지) 기후변화와 이기적인 인간의 행위 때문에 병들어가는 지구까지 (이례적인 폭풍, 홍수, 폭염, 산불, 해양 생물 집단 폐사) 그 어느 기사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식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크다는 속보, 경제 침체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워진 사람들, 지중해의 난민, 미국의 인종차별과 시위와 폭동, 폭풍과 홍수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한꺼번에 잃은 사람들, 남미 어느 나라에서는 COVID-19 사망자 수가 처리 인력을 앞서버린 지 오래여서 방치된 사체가 수두룩하다는 소식까지.

하느님! 하느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면 어째서 저 사람들이 저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왜 세상에는 저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저들의 외침이 안 들리세요? 하느님을 탓하면서도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기도뿐입니다. 번역해야 하는 기사가 계속 올라오는 와중에도 간절히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제발 저들 곁에 있어주세요.' 제가 당장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도 없기에 할 수 있는 게 고작 지구 반대편에서 바치는 화살기도뿐이지만,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그 순간만큼은 더 간절해집니다. 늦은 밤 퇴근길에 또 기도합니다. 하느님, 하느님께서 직접 저들의 고통을 없애주시지 않으실 거라면 부디 우리가 서로서로를 돌보고, 지구를 위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일은 오늘보다 마음 아픈 기사가 줄어들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율동찬양부 마라나타 부서원 모집

대상 하느님께 받은 몸을 기도로 봉헌하는 것에 관심있는 가톨릭 청년

내용 성가와 율동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청년부 율동찬양부에서 부서원을 모집합니다. 온 마음과 몸을 다해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기도하고 싶은 청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문의 02-762-5071~2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번역부 예로니모 부서원 모집

대상 영어/한글 번역에 관심있는 가톨릭 청년

내용 교황님 메시지, 세계 교회 소식 등 가톨릭 교회 내 소식들을 번역하여 하느님의 소리를 서울대교구 모든 청년에게 전달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62-5071~2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편집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주보편집부/ 전화 : 02) 762-5071, 2/ 이메일 : mail@2030.or.kr/ 홈페이지 : www.2030.or.kr/ 주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길 49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인쇄 : 가톨릭출판사